



광주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러시'...공청회 실효성 '논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기초의원은 40만원, 광역의원은 50만원까지 올릴 수 있게 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인상 '러시'가 이어지고 있다. 20년 만의 인상인 만큼 '올릴 때가 됐다'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할때 재정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광주 5개 기초의회가 꼭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공청회'로 추진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자치구 공청회에선 '월 40만원 인상'에 대해 100% 가까운 찬성률을 보여 주민들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요식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5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치구의회의 의원(7초)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을 기존 월 110만원에서 '최대 월 150만원'으로 올릴 수 있게 됐다. 시·도 의회 의원(광역) 상한선은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2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의정활동비는 의원에게 봉급 개념인 '월정수당'과 함께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보조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되고 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꾸준히 인상됐던 월정수당과 달리 의정활동비는 2003년부터 20년간 한 차례도 오르지 않았다.

5개 자치구 심의위원회의 1차 회의 날씨는 서로 달랐지만 인상을 위해 꼭 거쳐야 하는 주민 의견 수렴 방식을 '공청회'(동구·서구 3월 4일, 북구 3월 5일, 남구·광산구 3월 6일)로 정한 건 모두 동일했다.

공청회를 통한 의견 수렴 방식을 놓고 일각에선 실효성·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5개 자치구 공청회가 모두 평일에 열려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이번 심의를 통해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전까지 앞으로 2년여 동안 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20년만에 의정활동비 증액 추진 5곳 모두 월 40만원씩 ↑ 1차 의결...재정 부담 가중 우려 의견 수렴 현장서 100% 가까운 찬성에 '동원' 지적까지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확정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지만 한 차례에 불과한 공청회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용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주민 의견 수렴은 '여론조사' 방식으로도 가능하지만 5개 자치구 심의위원회가 모두 '공청회'를 택한 것도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이와 관련, 광주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이전부터 의정비 심의위원은 물론, 공청회 등 관련 절차에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인사가 들어가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며 "의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고 속

사정을 털어놨다. 이 같은 상황을 방증하듯 5개 자치구 심의위원회 모두 1차 회의에서 최대 상한선인 '월 150만원'까지 '40만원 증액'을 공청회 안건으로도 출했다.

해당 안건이 공청회를 거쳐 2차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면 역대급 세수 결손 상황에서 광주 5개 자치구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상분이 소급 적용되는 올해 1월부터 임기가 끝나는 2026년 6월까지 30개월간 매월 ▲북구 800만원(20명) ▲광산구 720만원(18명) ▲서구 520만원(13명)

▲남구 440만원(11명) ▲동구 280만원(7명)을 추가 지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총액으로 환산하면 추가 소요 예산은 ▲북구 2억4천만원 ▲광산구 2억1천600만원 ▲서구 1억5천600만원 ▲남구 1억3천200만원 ▲동구 8천400만원에 달한다.

추가 지출액은 결국 세금으로 충당하는 만큼 폭넓은 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지만 '월 40만원 인상'에 대해 전날 공청회가 열린 동·서구는 100% 가까운 찬성률을, 이날 북구 공청회 역시 대부분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형식적 절차와 다른 공청회에 참석자들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북구 공청회의 경우 시작 전 회의 의장을 찾았던 일부 현역 의원들이 개최 후 또는 중간에 퇴장하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4·5일 공청회에 참석한 참여자치 관계자들은 "20년 만의 인상인 만큼 올려야 한다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면 의정활동비 인상 과정은 물론, 지출내역도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적은 "의견 수렴 방식이 대부분 공청회로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로 관심이 있어 평일을 할애해 나오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새로운 의견 수렴 모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 5개 자치구는 공청회를 마친 뒤 2차 회의를 열어 최종 의정활동비 지급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연재명 기자



거리로 나온 화사한 봄꽃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절기상 경칩(驚蟄)인 5일 광주 북구 오치동 화훼단지 앞 거리에 진열된 형형색색의 화사한 꽃들이 완연한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전남대·조선대 의대 '동맹휴학' 학사 일정 차질

전대 78.6%·조대 81.2% 휴학...개강 후 출석 학생 전무

조대 45명 증원 신청·전대도 유사 규모...전국 3천401명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해 '동맹휴학'을 이어가면서 학사 일정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5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지난해 19일의과대학이 개강했지만 학생들의 집단 휴학

계 제출에 따라 두 차례 학사 일정을 연기해 오는 25일 강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전남대는 당초 한 차례 학사 일정을 연기해 6월 재개하기로 했으나 동맹휴학 관련 특이한 변동 사항이 없는 만큼 학생들

이 출석 가능성이 없어 교수회의를 통해 25일 강의 재개 방침을 결정했다.

전남대는 의대 재학생 732명 가운데 578명(78.6%)이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다. 전대는 의대 정원 증원 신청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는 방침이지만 현재 정원이 조선대와 동일한 125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단 증원 신청은 한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일 개강한 조선대학교 역시 단

한 명의 학생도 출석하지 않고 있다. 조선대는 재학생 727명 가운데 500여명(81.2%)이 휴학을 신청한 상태다. 개강일에도 학생들이 출석하지 않자 대학 관계자들은 대책 회의를 열어 1·2학년에게는 수업 참여를 재차 안내했고, 3·4학년의 경우 실험 실습 수업을 모두 연기했다. 통상 수업 일수의 1/3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받아 유급 처리되는 데 대규모 유급 사태를 막

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관계자는 "현재 15주 기준으로 학사 일정이 이뤄지더라도 15주 방학을 연장에 수업을 채우면 학생들에게 학습을 주는 데 큰 부담이 없어 수업 동점을 설행하고 있다"며 "학사 일정 연기를 통해 동맹휴학 종료를 기다리고 있으나 F학점이라는 학술적 반영으로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휴학 철회를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대 측은 지난 4일 의과대학 정원 125명에 45명을 추가해 총 170명의 정원을 교육부에 신청했다.

한편, 교육부에 제출된 2025학년도 의

대 정원 증원 신청 인원은 서울 소재 대학 8개교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교 555명, 비수도권 27개교 2천470명 등 총 3천401명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각 대학이 증원 수요조사에서 제출한 최대 규모였던 2천874명을 상회하는 수치다. /김다미 기자

Today

'정치적 섹션' 출서기용 지지 선언 3면
장갑수와 함께 걷는 길...백운산 14면
박준표·윤도현 스포츠클럽 MVP 16면

제11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 할 기회!
Redesign your life!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제11기 광주매일신문 창조클럽 아카데미

- 지원자격** 기업경영진 및 관리자, 지자체장 및 의원, 기관단체장, 법조·의료·교육·문화·예술계 전문가 등
- 모집인원** 00명
- 교육기간** 2024년 3월 26일(화) ~ 2024년 12월 종강(연 16회)
- 강의시간** 격주 화요일 오후(7시~8시30분, 6시부터 식사)
- 강의장소**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 전형방법**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금계산서 요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수강료 : 380만원(부가세 포함)
- 입금계좌 : 광주은행 (016-107-391900 : (주)광주매스컴)
- 접수마감일 : 2024년 3월 15일(금)
- 문의 :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 (062-650-2074)
-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38번길 16

수강생 모집요강

■ 주요강사진 (예정)

 박수중 소장 리엔경제연구소	 김계운 교수 전남대의과대학	 문달주 교수 ASSIST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재희 원장 민족문화재단 연구원	 오정애 국악인
 이승재 영화평론가	 이중선 대표 에이미디어컨설팅	 이창용 미술사	 임진모 음악평론가	 최은희 대표 2M커뮤니케이션